

<b>배포일시</b>	2010. 06. 25.(금) 11:00 (총9매)	<b>보도시점</b>	<b>즉시</b>
<b>담당부서</b>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대	<b>담당자</b>	대장 이 동 한
		<b>전화번호</b>	053-952-0366

## 7월 기상재해 정보(대구·경북)

-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 7월의 기상 특성**

- 7월 중순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자주 내리며,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키면 지역에 따라 시간당 80mm 내외의 집중호우가 나타나기도 함. 최근에는 이러한 집중호우 현상이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경향임.
- 하순에는 장마가 종료되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남.
- 평년 7월에 태풍은 4.1개가 생겨 그 중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 7월의 대표적 기상 재해**

**○ 집중호우**

최근의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강수를 기록함. 2007년 7월 29일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60mm의 강한 비가 내렸음. 1시간 최다강수량이 봉화 83.5mm, 울진 53.5mm로 7월 극값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 날 대구·경북 곳곳에서 낙뢰와 돌풍에 의한 피해가 있었음.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축대, 배수로, 하천시설 등 취약 시설물 점검이 필요함.

**○ 폭염과 열대야**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 현상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남. 최근 5년간 7월에 폭염 일수(일최고기온 33℃이상, 일최고열지수 32℃이상)는 대구가 40일로 가장 많았고, 영천, 의성이 33일, 구미 28일, 영덕 25일, 포항 24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7월에 열대야 일수는 대구가 42일로 가장 많았고, 포항 26일, 영덕 8일, 구미 5일, 안동 3일로 나타났음.

폭염이 예상될 시는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격렬한 운동은 삼가고,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등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함.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을 많이 섭취하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여 숙면을 취하도록 함. 양계장, 축사, 돈사 등에서는 가축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 강구가 필요함.

## ○ 태풍

평년 7월에 4.1개가 생겨나고, 그 중 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작년 7월에는 2개의 태풍이 생겼으나,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음. 7월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태풍은 1987년 7월 15일~16일 사이에 지나간 태풍 “셀마”로 사망 345명, 재산피해 5,965억원의 피해가 있었음. 최근 5년 이내에는 2008년 7월 20일 태풍 “갈매기”, 2006년 7월 10일에 태풍 “에위니아”가 있음. 태풍 접근시 호우뿐만 아니라 강풍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표1. 평년 7월 기온 및 강수량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7월	대구·경북	대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평균기온	24.4	25.7	24.8	24.7	22.9	23.9	24.3	23.8	24.5	24.7
최저기온	20.6	22.1	21.7	20.8	19.9	19.8	20.4	20.2	20.0	20.6
최고기온	29.0	30.3	28.8	29.6	26.3	28.9	29.1	28.2	29.9	29.5
강수량	206.3	206.7	182.4	217.2	153.8	259.1	270.8	160.7	206.2	199.9

표2. 7월 일최고기온 극값

단위 : °C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1992.07.29	37.0	1994.07.14	36.3	2007.07.27	36.0	1989.07.19	35.9	1992.07.30	35.6
안동	1977.07.29	37.6	1973.07.26	37.5	1977.07.31	37.4	1973.07.17	37.4	1977.07.30	37.3
상주	2004.07.31	36.3	2004.07.30	35.8	2004.07.29	35.5	2008.07.06	35.3	2005.07.22	35.3
포항	1994.07.14	38.6	1994.07.13	38.2	1944.07.17	38.0	1978.07.06	37.9	1994.07.20	37.8
대구	1942.07.28	39.7	1942.07.13	39.6	1939.07.21	39.6	1977.07.31	39.5	1942.07.31	39.5
봉화	1994.07.16	36.6	1994.07.20	36.1	1994.07.22	36.0	1994.07.21	35.6	1997.07.22	35.4
영주	2004.07.31	37.2	1977.07.29	37.2	1978.07.26	37.0	1994.07.22	36.9	1977.07.31	36.9
문경	1977.07.31	37.2	1977.07.29	37.1	1977.07.30	36.9	1994.07.22	36.6	1978.07.26	36.5
영덕	2008.07.06	37.7	1988.07.09	37.4	1978.07.08	37.3	1992.07.30	37.1	2008.07.10	36.7
의성	1994.07.22	38.5	1994.07.23	37.8	1994.07.13	37.7	1994.07.24	37.5	1994.07.16	37.4
구미	1994.07.16	37.4	1994.07.13	37.1	2004.07.31	37.0	1994.07.22	36.9	1978.07.26	36.8
영천	1994.07.20	39.4	1994.07.21	39.3	1994.07.15	38.9	1994.07.19	38.6	1994.07.14	38.1

표 3. 7월 일강수량 극값

단위 : mm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2008.07.25	144.5	2006.07.16	134.5	1998.07.25	132.2	1975.07.06	125.6	1984.07.23	117.2
안동	2000.07.23	170.7	2009.07.21	129.5	1975.07.06	120.2	1997.07.06	118.4	1998.07.11	114.1
상주	2006.07.10	117.0	2005.07.11	114.0	2006.07.17	83.0	2009.07.09	81.5	2009.07.12	78.0
포항	1970.07.05	151.6	1974.07.06	137.1	1961.07.10	114.4	1964.07.18	100.1	1987.07.15	100.0
대구	1948.07.30	203.2	1941.07.06	154.8	1926.07.18	142.2	1934.07.19	123.5	1948.07.29	123.2
봉화	2001.07.15	228.5	2008.07.25	198.5	1988.07.20	184.2	1989.07.26	129.1	1997.07.01	122.5
영주	1988.07.20	184.2	1997.07.01	147.0	1987.07.22	140.6	1989.07.26	138.4	2006.07.16	127.0
문경	1987.07.22	173.3	2003.07.09	161.0	2005.07.11	155.5	1993.07.13	136.5	1997.07.01	135.0
영덕	1975.07.06	139.2	1987.07.15	120.0	2006.07.10	113.5	1998.07.26	108.0	2002.07.05	103.5
의성	2006.07.26	164.0	1975.07.06	119.2	2000.07.23	104.5	1983.07.22	103.0	2006.07.10	96.5
구미	2006.07.10	135.0	1988.07.13	122.5	1975.07.06	114.2	1983.07.22	107.6	1993.07.13	95.5
영천	2006.07.09	99.0	1997.07.01	97.5	1997.07.16	96.5	1974.07.03	96.5	1991.07.31	96.2

※ 첨부 : 로컬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3-952-0366, <http://www.kma.go.kr>



# 7월 기상재해 정보(대구·경북)

## -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대구 기상 대  
2010년 6월 25일 11시 발표

### □ 7월의 기상 특성

- 7월 중순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자주 내리며,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키면 지역에 따라 시간당 80mm 내외의 집중호우가 나타나기도 함. 최근에는 이러한 집중호우 현상이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경향임.
- 하순에는 장마가 종료되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남.
- 평년 7월에 태풍은 4.1개가 생겨 그 중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 장마 평년값

지 역	시작일	종료일	기 간	강수량(mm)
남부지방	6.22~23	7.22~23	32	199~443(평균 330.9)
2009년 (대구·경북)	6.21	8.3	43	234~544(평균 392.6)

### □ 최근 5년간 7월 기상 재해 사례

#### ○ 집중호우

최근의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강수를 기록함. 최근 집중호우 사례로는 2007년 7월 29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고 북쪽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60mm의 강한 비가 내렸음. 1시간 최다강수량이 봉화 83.5mm, 울진 53.5mm로 7월 극값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 날 대구·경북 곳곳에서 낙뢰와 돌풍에 의한 피해가 있었음.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축대, 배수로, 하천시설 등 취약 시설물 점검이 필요함.

#### ○ 폭염과 열대야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 현상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남. 최근 5년간 7월에 폭염 일수(일최고기온 33℃이상, 일최고열지수 32℃이상)는 대구가 40일로 가장 많았고, 영천, 의성이 33일, 구미 28일, 영덕 25일, 포항 24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7월에 열대야 일수는 대구가 42일로 가장 많았고, 포항 26일, 영덕 8일, 구미 5일 안동 3일로 나타났음.

대구·경북의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강수일수가 적고, 소백산맥, 태백산맥 등 주변의 산맥 영향으로 발생하는 유사 편현상과 강한 지면 가열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와 지리적 영향 때문임. 특히, 포항, 울진 등 동해안지역은 남서풍이 불 때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전국 최고기온이 발생될 때도 있음.

폭염이 예상될 시는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격렬한 운동은 삼가고,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등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함.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을 많이 섭취하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여 숙면을 취하도록 함. 양계장, 축사, 돈사 등에서는 가축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 강구가 필요함.

표 1. 최근 5년(2005~2009년) 7월 지점별 폭염 일수

지점명	대구	영천	의성	구미	영덕	포항	상주	안동	문경	영주	울진	봉화	평균
2005년	8	8	6	7	2	6	5	3	3	3	0	0	4.3
2006년	6	6	6	5	3	5	2	0	1	0	0	0	2.8
2007년	5	6	3	2	2	3	0	0	0	0	2	0	1.9
2008년	20	13	18	13	17	10	9	11	7	7	5	7	11.4
2009년	1	0	0	1	1	0	0	0	0	0	0	0	0.3
합계	40	33	33	28	25	24	16	14	11	10	7	7	20.7
평균	8.0	6.6	6.6	5.6	5.0	4.8	3.2	2.8	2.2	2.0	1.4	1.4	4.1

표 2. 최근 5년(2005~2009년) 7월 지점별 열대야 일수

지점명	대구	포항	영덕	구미	안동	영천	울진	영주	의성	봉화	문경	평균
2005년	7	10	2	1	0	0	0	0	0	0	0	1.8
2006년	7	6	0	0	0	1	0	0	0	0	0	1.3
2007년	5	3	0	0	0	0	1	1	0	0	0	0.9
2008년	20	6	6	3	3	1	1	0	1	0	0	3.7
2009년	3	1	0	1	0	0	0	0	0	0	0	0.5
합계	42	26	8	5	3	2	2	1	1	0	0	8.2
평균	8.4	5.2	1.6	1.0	0.6	0.4	0.4	0.2	0.2	0.0	0.0	1.6

## ○ 태풍

평년 7월에 4.1개가 생겨나고, 그 중 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작년 7월에는 2개의 태풍이 생겼으나,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음. 7월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태풍은 1987년 7월 15일~16일 사이에 지나간 태풍 “셀마”로 사망 345명, 재산피해 5,965억원의 피해가 있었음. 최근 5년 이내에는 2008년 7월 20일 태풍 “갈매기”, 2006년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가 있음. 태풍 접근시 호우뿐만 아니라 강풍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붙임 : 7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 붙임 】

7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대구기상대

1. 7월 지역별 평년 기후값 및 극값

□ 기후 평년값 (7월)

평균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23.3	24.8	23.7	23.8	21.5	23.0	23.4	22.5	23.5	23.6
중 순	24.0	25.3	24.4	24.4	22.6	23.6	23.9	23.6	24.2	24.4
하 순	25.7	27.0	26.2	26.0	24.4	25.2	25.6	25.3	25.7	26.0
평 균	24.4	25.7	24.8	24.7	22.8	23.9	24.3	23.8	24.5	24.7

최저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19.4	21.0	20.5	19.7	18.4	18.6	19.2	18.7	18.7	19.4
중 순	20.5	21.9	21.4	20.7	19.6	19.7	20.2	20.1	20.1	20.6
하 순	21.9	23.4	23.2	21.9	21.4	21.0	21.6	21.6	21.1	21.8
평 균	20.6	22.1	21.7	20.8	19.8	19.8	20.3	20.1	20.0	20.6

최고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27.9	29.4	27.7	28.7	25.0	28.1	28.3	26.8	29.1	28.4
중 순	28.4	29.7	28.3	29.0	26.0	28.2	28.4	27.8	29.3	29.1
하 순	30.4	31.7	30.3	31.0	27.9	30.4	30.5	29.7	31.2	31.0
평 균	28.9	30.3	28.8	29.6	26.3	28.9	29.1	28.1	29.9	29.5

강수량

단위 : mm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61.4	61.8	58.7	63.6	51.0	73.1	77.0	49.0	61.8	56.9
중 순	81.1	80.7	63.5	89.0	52.7	112.5	112.0	59.2	80.6	79.7
하 순	63.8	64.3	60.3	64.6	50.2	73.5	81.8	52.5	63.8	63.4
합 계	206.4	206.8	182.5	217.2	153.9	259.1	270.8	160.7	206.2	200.0

(평년기간 : 대구, 포항, 울진(1971~2000년), 구미,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1973~2000년))

□ 7월 일최고기온(℃)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1992.07.29	37.0	1994.07.14	36.3	2007.07.27	36.0	1989.07.19	35.9	1992.07.30	35.6
안동	1977.07.29	37.6	1973.07.26	37.5	1977.07.31	37.4	1973.07.17	37.4	1977.07.30	37.3
상주	2004.07.31	36.3	2004.07.30	35.8	2004.07.29	35.5	2008.07.06	35.3	2005.07.22	35.3
포항	1994.07.14	38.6	1994.07.13	38.2	1944.07.17	38.0	1978.07.06	37.9	1994.07.20	37.8
대구	1942.07.28	39.7	1942.07.13	39.6	1939.07.21	39.6	1977.07.31	39.5	1942.07.31	39.5
봉화	1994.07.16	36.6	1994.07.20	36.1	1994.07.22	36.0	1994.07.21	35.6	1997.07.22	35.4
영주	2004.07.31	37.2	1977.07.29	37.2	1978.07.26	37.0	1994.07.22	36.9	1977.07.31	36.9
문경	1977.07.31	37.2	1977.07.29	37.1	1977.07.30	36.9	1994.07.22	36.6	1978.07.26	36.5
영덕	2008.07.06	37.7	1988.07.09	37.4	1978.07.08	37.3	1992.07.30	37.1	2008.07.10	36.7
의성	1994.07.22	38.5	1994.07.23	37.8	1994.07.13	37.7	1994.07.24	37.5	1994.07.16	37.4
구미	1994.07.16	37.4	1994.07.13	37.1	2004.07.31	37.0	1994.07.22	36.9	1978.07.26	36.8
영천	1994.07.20	39.4	1994.07.21	39.3	1994.07.15	38.9	1994.07.19	38.6	1994.07.14	38.1

□ 7월 일강수량(mm)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2008.07.25	144.5	2006.07.16	134.5	1998.07.25	132.2	1975.07.06	125.6	1984.07.23	117.2
안동	2000.07.23	170.7	2009.07.21	129.5	1975.07.06	120.2	1997.07.06	118.4	1998.07.11	114.1
상주	2006.07.10	117.0	2005.07.11	114.0	2006.07.17	83.0	2009.07.09	81.5	2009.07.12	78.0
포항	1970.07.05	151.6	1974.07.06	137.1	1961.07.10	114.4	1964.07.18	100.1	1987.07.15	100.0
대구	1948.07.30	203.2	1941.07.06	154.8	1926.07.18	142.2	1934.07.19	123.5	1948.07.29	123.2
봉화	2001.07.15	228.5	2008.07.25	198.5	1988.07.20	184.2	1989.07.26	129.1	1997.07.01	122.5
영주	1988.07.20	184.2	1997.07.01	147.0	1987.07.22	140.6	1989.07.26	138.4	2006.07.16	127.0
문경	1987.07.22	173.3	2003.07.09	161.0	2005.07.11	155.5	1993.07.13	136.5	1997.07.01	135.0
영덕	1975.07.06	139.2	1987.07.15	120.0	2006.07.10	113.5	1998.07.26	108.0	2002.07.05	103.5
의성	2006.07.26	164.0	1975.07.06	119.2	2000.07.23	104.5	1983.07.22	103.0	2006.07.10	96.5
구미	2006.07.10	135.0	1988.07.13	122.5	1975.07.06	114.2	1983.07.22	107.6	1993.07.13	95.5
영천	2006.07.09	99.0	1997.07.01	97.5	1997.07.16	96.5	1974.07.03	96.5	1991.07.31	96.2

□ 7월 1시간 최다강수량(mm) 극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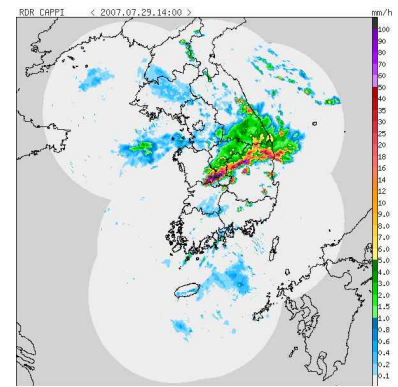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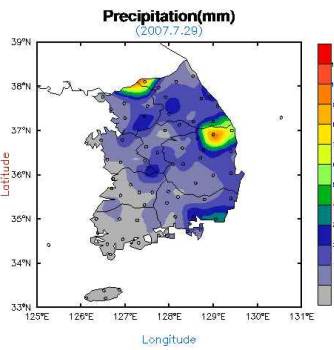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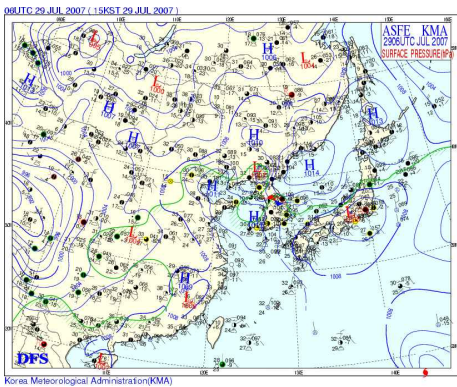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2007.07.29	53.5	1993.07.11	39.8	2005.07.01	39	2006.07.15	31.5	1997.07.01	28
안동	2009.07.21	63.5	2004.07.13	50	2008.07.25	44	2009.07.12	42	2009.07.15	40
상주	2009.07.15	44	2004.07.03	37.5	2009.07.09	29	2003.07.25	29	2009.07.12	28.5
포항	1998.07.21	58	1964.07.14	49	1973.07.30	43.2	1971.07.01	39.5	2009.07.15	37
대구	1941.07.06	80	1956.07.14	55.9	1958.07.04	48.7	1961.07.04	47.3	1964.07.15	47
봉화	2007.07.29	83.5	1988.07.20	61.2	1997.07.23	59	2001.07.15	55	2001.07.26	54.5
영주	2007.07.04	54	1997.07.16	48.5	1997.07.01	46	1988.07.20	45	2005.07.01	43.5
문경	2004.07.16	47.5	1980.07.22	44	1974.07.31	42	1992.07.15	39.5	1996.07.22	38
영덕	2009.07.02	46.5	2006.07.10	40	1983.07.22	33.5	1973.07.27	31.5	2005.07.01	30.5
의성	1992.07.15	58	2006.07.26	55.5	1984.07.05	47.5	2009.07.21	43	1973.07.30	42.5
구미	1983.07.22	40	1991.07.01	38	1988.07.13	38	2005.07.02	37	1992.07.14	37
영천	1973.07.30	48	1975.07.24	38.5	1991.07.31	35.2	1998.07.26	35	2009.07.15	34

## 2. 기상재해 사례

### □ 집중호우(2007. 7. 29.)

#### ○ 기압계 및 기상 상황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고 북쪽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60mm의 강한 비가 내렸음. 1시간 최다강수량이 봉화 83.5mm, 울진 53.5mm로 7월 극값 1위를 기록하였음.



#### ○ 지점별 관측자료(2007. 7. 29.)

단위 : mm

지 점	봉화	울진	안동	영주	영덕	포항	의성	구미	문경	영천	상주	대구
1시간 최다 강수량	83.5	53.5	23.0	20.5	15.5	13.5	11.0	11.0	9.0	7.0	3.0	2.2

#### ○ 집중호우 재해 관련 기사

**영남브리핑** **대구 경북도 곳곳 기상 피해**

- 물줄기로 인한 추락 나무 쓰러져
- 골간 원전 낙뢰로 원자로 정지 사고
- 안동선 우박 쏟아져 함께 등 피해

7/29 화부 기사가 쓴 기사 더보기

**휴일인 29일 대구 경북지역 곳곳에서 돌풍·우박·낙뢰 등 계절적상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후 3시10분경 대구시 수성구 범동동 진달래에서 직경 30cm, 높이 5m의 가로수가 넘어져 부근에 있던 이모씨(63) 등 3명이 다쳤다.

또 북구 태전동 **수상시장** 무 절과 수성구 지산1동 모 빌딩 등 2곳의 **간판**이 추락했으며 중구 교동, 수성구 상동 등 2곳은 간판이 떨어지면서 **전선** 등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문서구 북동에서도 **나무**가 넘어지는가 하면 북구 산격동에서 **철골구조물**이 추락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30여분간 추락 추락, 나무 **전도(轉倒)**, 철골구조물 추락 등 9건의 각종피해사고가 접수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날 대구지역 **홍수**는 초속 8m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순간적으로 초속 18.3m의 강풍이 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천동변개**와 **남원**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린 **울진** 지역에서는 울진원자력본부 울진원자력 6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 **낙뢰 보호경계기**가 동작,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정지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 북면 두천리, **근남면** 산포리 등지에도 낙뢰로 인한 **절전**이 발생, 이날 오후 7시쯤 완전히 복구됐다.

또 오후 2시30분부터 10분 동안 안동시 풍산읍 서미 죽전 만운리 일대에 강풍과 함께 직경 10mm가량의 우박이 쏟아져 수확기를 앞둔 **참깨**, 사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풍산읍 소년 **중앙고속도로** 안동휴게소 인근 중앙분리대와 남쪽면 무룡리 무룡유원지 인근 국도 중앙분리대도 강풍에 파손됐다.

이날 폭우로 **휴가철**을 맞아 길인면 길안천과 남후면 무룡정유원지 등 강을 찾았던 **피서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7. 7. 30. 영남일보

**여름철 집중호우 조심하자**

7/29 일력시간 : 2007-07-29 21:02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장마전선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갑작스런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어 전국이 돌풍, 천둥, 번개, 일부 우박 등을 동반한 집중호우와 14만 번의 번개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등산객, 물놀이객, 교통사고 등 전국적으로 각종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많았다고도 한다.

등산객 사고는 고지대에서 인명사고가 있었다는데 산의 고지대에서는 벼락을 동반한 폭우를 만나면 몸을 낮춰서 저지대로 이동을 해야 하며 이동시 큰 나무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금속성 물체를 몸에서 이탈시키거나 만지고 있지 않아야 벼락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부 등산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한다.

물놀이 사고도 잇달아 발생했는데 급류에 휘말리거나 실종되고 강가 주변에 있다가 강한 돌풍으로 인해 텐트가 날아가고, 수영장 탈의실이 무너지거나 강한 바람에 날리는 등 이틀새 13명이나 사망 실종하는 등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한다.

예기치 않은 폭우에는 교통사고도 예외일수는 없었다. 전국적으로 빗길 참변도 잇달아 발생했다.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 간 충돌, 전신주 충돌, 나무가 뽑혀 차량을 덮치거나 언덕 아래로 전복 되는 등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상하는 결과도 초래 됐다고 한다.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으니 사후적으로라도 신속한 조치 및 부상자의 빠른 쾌유, 물적 피해복구를 바라며 실종자는 신속히 구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같은 피해가 반복 발생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 번 상기해 본다. 예기치 못한 벼락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피신하기 바쁘더라도 등산객들은 산 정상에서는 무조건 저지대 이동, 큰 나무 근처와 거리 유지, 금속성물체 만지지 않기 등을 잘 지켜야겠다.

이러한 안전조치사항을 등산하기 전 사전에 등산객 서로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거나 등산로 중간 중간에 경고 안내판이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물놀이객은 갑작스런 폭우 및 돌풍 때는 무조건 물가 주변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비오는 날에는 되도록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등 서행 안전운전만이 최선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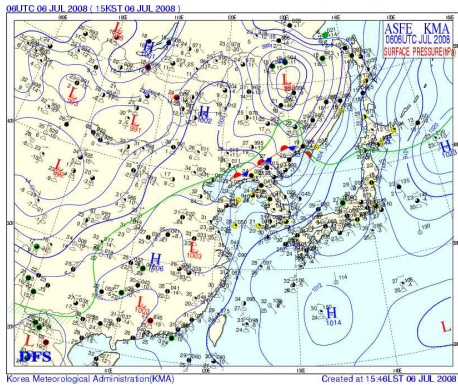
앞으로도 무더위 속에서 계속 소나기 구름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에는 장간의 폭우에도 피해는 영남할 수 있으니 갑작스런 폭우 및 재난에 대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김수철

2007. 7. 30. 대구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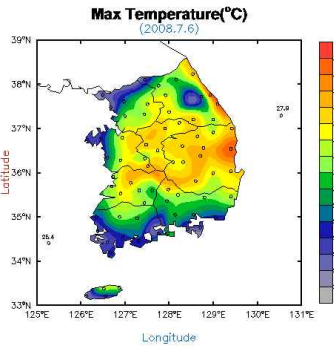
□ 폭염(2008. 7. 6. ~ 7. 11.)

○ 기압계 및 기상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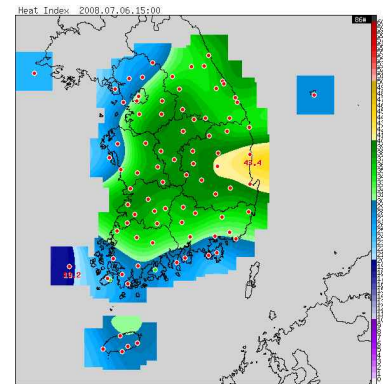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폭염 현상이 나타남. 2008년 7월 5일 올진, 영덕을 시작으로 6일과 7일에 걸쳐 대구·경상북도 전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대구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표되었음. 영덕은 7월 6일 전국 최고기온을 기록하였음. 2008년 7월의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은 1973년 이래 4번째로 높았고, 최저기온은 2번째로 높았음.



2008. 7. 6. 15:00 지상일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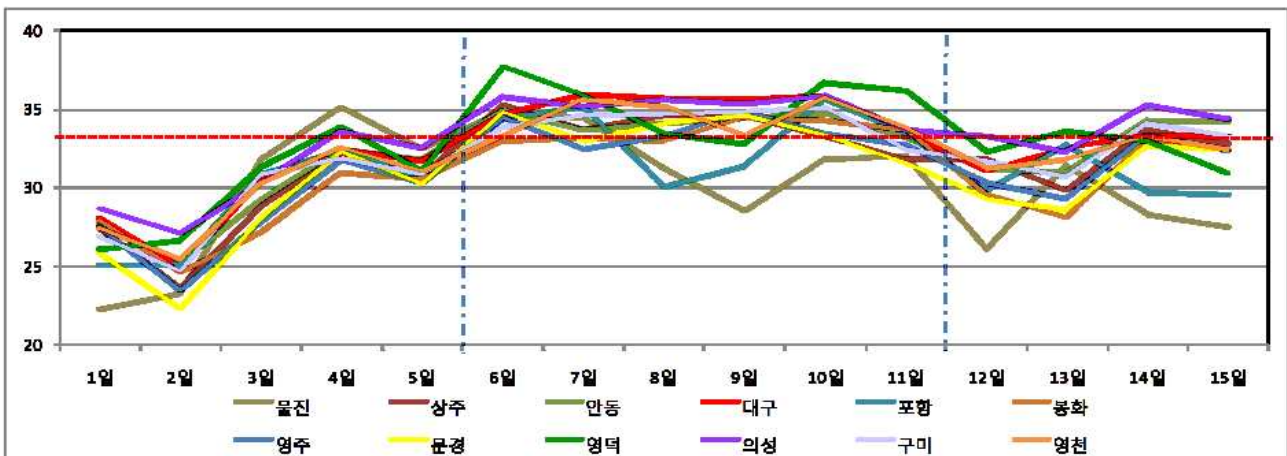


2008. 7. 6. 일최고기온 분포



2008. 7. 6. 15:00 열지수 분포

○ 지점별 일최고기온(단위 : °C)



○ 폭염 재해 관련 기사



대구·경북 '폭염 기습'

대구 34.7도, 영덕 37.7도 '절대 최고' 기록  
이틀째 열대야-서민들 발칵 뒤집어

폭염의 열대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대구는 7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최고 34.7도를 기록하며 '절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영덕은 37.7도를 기록하며 '절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대구는 7월 7일 오후 3시 30분께 최고 34.7도를 기록하며 '절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영덕은 37.7도를 기록하며 '절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단기간 마른장마 속 두드러

남해 고기온 30-33도  
단기간 마른장마 속 두드러

남해 고기온 30-33도, 단기간 마른장마 속 두드러. 단기간 마른장마 속 두드러. 단기간 마른장마 속 두드러.

2008. 7. 7. 대구신문



폭폭진다 대구 경북 14~15일 조기방학  
8월 수돗물사용량 줄어들 최대

관련기사 5면  
9일 현재 대구와 경북 1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고교가 단축수업과 함께 여름방학기간에 비해 보름 앞당겨 오는 14~15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영종대위를 보이자 초등학교 21개 전부와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이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수업을 실시했다. 초등학교들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고 중·고교는 수업시간보다 5~10분 단축하는 방편으로 수업시간을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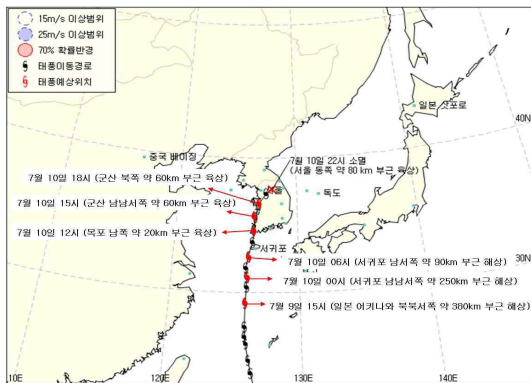
2008. 7. 10. 대구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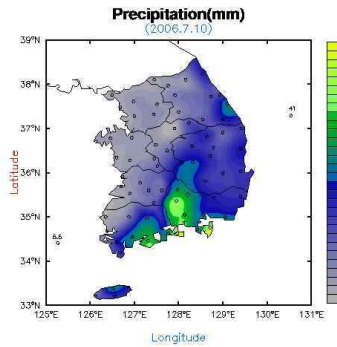
# □ 태풍 “에위니아”(WINIAR, 2006. 7. 10.)

## ○ 기압계 및 기상 상황

2006년 7월 1일 광 남서쪽 1,010km 해상에서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북상하여 7월 10일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강풍과 호우가 발생하였음. 대구·경북 대부분의 지방에서 일강수량 100mm 내외의 호우가 있었으며, 울진, 영덕에는 일최대순간풍속 33.3m/s, 21.7m/s의 강풍이 불어 7월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음. 전국적으로 1조 8,344억원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2006년 3호 태풍 “에위니아” 이동 경로



2006. 7. 10. 강수량 분포

## ○ 지점별 관측자료(2006. 7. 10.)

지점	일최대풍속(m/s)	일최대순간풍속(m/s)	일강수량(mm)	1시간최다강수량(mm)
울진	24.2	33.3	86.5	21.0
안동	10.1	18.8	75.5	24.0
상주	6.7	15.6	117.0	27.5
포항	9.9	19.3	95.0	27.5
대구	12.2	19.9	96.0	30.0
봉화	8.3	13.6	58.5	11.0
영주	5.5	13.1	103.5	26.0
문경	8.3	15.6	92.5	14.0
영덕	11.8	21.7	113.5	40.0
의성	6.1	14.1	96.5	22.5
구미	5.9	11.5	135.0	28.5
영천	9.7	15.1	85.0	26.0

## ○ 태풍 “에위니아” 재해 관련 기사

**태풍 할렐 대구·경북 ‘속대발’**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WINIAR)’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대구 경북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범람, 침수와 산사태, 경진 등 태풍 피해가 속출했다.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부터 이날 오후 6시 현재 대구 경북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166mm를 기록했으며 초속 30m대의 강한 바람과 시간당 20~50mm의 폭우로 동해안과 내륙을 쓸고 갔다.

시군별로 대구가 224.5mm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영도 276(매진 283)mm, 고령 275(우곡 370)mm, 중산 244(압령 299)mm, 포항 222.6mm 등 경북 중 남부권에 비바람이 집중됐다. 이날은 비의 양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의 평균 강수량 123mm와 2003년 태풍 ‘매미’ 당시의 평균 172mm에 근접해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경북지역은 이같은 불난리에 상주군 성주읍과 고령군 상림면 매촌리 등지에서 주택 53채가 침수됐고 농경지 95ha(고령 93ha, 성주 2ha)가 물에 잠긴 것으로 조사됐다. 폭우에 강물이 불면서 남동교의 수위가 2.69m(경계 7.5m), 고령교 3.9m(경계 9.5m), 포항교 2.46m(경계 2.5m)까지 올라갔다.

인명피해도 잇따라 지난 9일과 10일 성주읍 청도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진 2명과 실종 2명을 합치면 인명 피해는 모두 4명에 이르고 있다.

대구 도심은 홍신교에서 침산교 사이 신천우안도로 5km와 가창교에서 삼동교까지의 신천저안도로 5km 구간, 달성군 구리리 하차도 2000여 m 등 모두 9개 구간이 물에 차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영북지역은 경산시 하양읍 한강리에서 남하리 남하저수교 3km구간과 고령군 상림면 화가리 국도 33호선 등이 침수되는 등 모두 22개 구간의 차량통행이 통제됐다.

경전 서해도 잇따라 낮 12시10분경 구미시 공단 2중에서 강풍에 무너진 나뭇가지가 선로를 덮쳐 100여가구가 전기 공급이 20여분동안 중단된 것을 비롯해 대구 울주와 수성구 일부지역에서 1번 안락의 승선정전 사고가 수천건의 발생하는 등 대구경북 4500여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폭우에 덮여 저수율이 낮아도 문문양의 저수율이 한 때 66%까지 차 올라달음 50%의 물을 방류했고 영남면 39.8%, 안동면 29%, 임하면 24.6%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태풍이 내습하면서 대구시의 강북도는 일선 시·군 공무원 4천여명을 동원, 응급복구 작업에 나서는 한편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태풍 피해를 조사 중이다.

대구시·경북도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11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20~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06. 7. 10. 대구신문

**태풍 ‘에위니아’ 대구 경북 직격탄**

**최고 220mm...주택·도로 침수 하천범람·토사유출로 교통통제**

10일 대구 경북지역은 태풍 ‘에위니아’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대구 경북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범람, 침수와 산사태, 경진 등 태풍 피해가 속출했다.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부터 이날 오후 6시 현재 대구 경북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166mm를 기록했으며 초속 30m대의 강한 바람과 시간당 20~50mm의 폭우로 동해안과 내륙을 쓸고 갔다.

시군별로 대구가 224.5mm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영도 276(매진 283)mm, 고령 275(우곡 370)mm, 중산 244(압령 299)mm, 포항 222.6mm 등 경북 중 남부권에 비바람이 집중됐다. 이날은 비의 양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의 평균 강수량 123mm와 2003년 태풍 ‘매미’ 당시의 평균 172mm에 근접해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경북지역은 이같은 불난리에 상주군 성주읍과 고령군 상림면 매촌리 등지에서 주택 53채가 침수됐고 농경지 95ha(고령 93ha, 성주 2ha)가 물에 잠긴 것으로 조사됐다. 폭우에 강물이 불면서 남동교의 수위가 2.69m(경계 7.5m), 고령교 3.9m(경계 9.5m), 포항교 2.46m(경계 2.5m)까지 올라갔다.

인명피해도 잇따라 지난 9일과 10일 성주읍 청도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진 2명과 실종 2명을 합치면 인명 피해는 모두 4명에 이르고 있다.

대구 도심은 홍신교에서 침산교 사이 신천우안도로 5km와 가창교에서 삼동교까지의 신천저안도로 5km 구간, 달성군 구리리 하차도 2000여 m 등 모두 9개 구간이 물에 차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영북지역은 경산시 하양읍 한강리에서 남하리 남하저수교 3km구간과 고령군 상림면 화가리 국도 33호선 등이 침수되는 등 모두 22개 구간의 차량통행이 통제됐다.

경전 서해도 잇따라 낮 12시10분경 구미시 공단 2중에서 강풍에 무너진 나뭇가지가 선로를 덮쳐 100여가구가 전기 공급이 20여분동안 중단된 것을 비롯해 대구 울주와 수성구 일부지역에서 1번 안락의 승선정전 사고가 수천건의 발생하는 등 대구경북 4500여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폭우에 덮여 저수율이 낮아도 문문양의 저수율이 한 때 66%까지 차 올라달음 50%의 물을 방류했고 영남면 39.8%, 안동면 29%, 임하면 24.6%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태풍이 내습하면서 대구시의 강북도는 일선 시·군 공무원 4천여명을 동원, 응급복구 작업에 나서는 한편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태풍 피해를 조사 중이다.

대구시·경북도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11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20~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새벽 태풍 영향 벗어나 4도 밀리기도 복상

10일 새벽 대구 경북지역은 태풍 ‘에위니아’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대구 경북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범람, 침수와 산사태, 경진 등 태풍 피해가 속출했다.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부터 이날 오후 6시 현재 대구 경북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166mm를 기록했으며 초속 30m대의 강한 바람과 시간당 20~50mm의 폭우로 동해안과 내륙을 쓸고 갔다.

2006. 7. 11. 대구일보